

시마바라반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리플릿: 온천과 용수

이 지역의 화산 활동은 때로는 위험하지만 그 만큼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. 지진과 화산 분화를 일으키는 힘 덕분에 무수한 온천과 용수가 생겨났습니다. 시마바라의 지형에는 이러한 힘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흔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치지와 단층

치지와 단층은 전체길이 14킬로미터, 최대 낙차 약 450미터이며, 반도 전체에서 가장 크고 명료한 단층선을 보여줍니다. 이곳에서는 용수는 볼 수 없지만 땅속에서 활동하는 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.

오바마 온천 순회

오바마초에는 시마바라반도에서 가장 뜨거운 온천이 있습니다. 이곳에는 일본에서 제일 긴 전체길이 105m, 원천 100%의 족탕 ‘훗토허토허105’가 있습니다. 오바마 온천의 원천 온도가 105℃인 것에서 이 길이로 만들어졌습니다. 땅속에서 솟아나는 물의 온도는 105℃이지만, 족탕에는 식혀서 적정 온도로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.

운젠 ‘지옥’ 순회

운젠의 ‘지옥’이 왜 그렇게 불리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. 이곳은 뜨거운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고, 유황 냄새가 진동하며,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까지 들립니다.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. 이곳은 이 지역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더 깊이 배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.

시마바라 용수 순회

‘물의 도시’ 시마바라는 용수를 중심으로 세워진 마을입니다. 70개가 넘는 용수가 있으며, 그 용수량은 하루에 20만 톤이라고 합니다. 옛날 모습의 마을에는 작은 수로가 주위를 둘러싸 물을 운반하고 있고, 이 풍부한 물을 이용해 다양한 공원과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.